

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비표상성

임 민 정[†]

서원대학교 패션의류학과 조교수[†]

Non-Representation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Min-Jung Im[†]

Assistant Prof., Dept. of Fashion & Clothing, Seowon University[†]

(2023. 1. 3 접수; 2023. 1. 17 수정; 2023. 2. 1 채택)

Abstract

Non-representation creates difference and change that can be used as a creative design method that satisfies contradictory requirements for similarity and differentiation. This study drew up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cept of non-representation expressed in contemporary art and architecture, in which Gilles Deleuze's philosophical thinking was reflected, and analyzed the non-representation depicted in contemporary fashion. The non-representation expressed in contemporary art and architecture is as follows. Non-representation of delaying becoming focuses on reverting to preexisting objects and redefining traditional meaning, thereby delaying the representation of latent meaning. Non-representation of non-becoming removes existing values and typical forms and expresses amorphousness. Non-representation of becoming by repetition or reiteration realizes the difference caused by the passage of time by repeating or overlapping shapes. Non-representation of becoming expresses the transformation of space by flowing through time rather than by actual movement. Non-representation in contemporary fashion shows the following expression characteristics. First, the non-representation of deferring becoming deconstructs the traditional values and forms of clothing and expresses designs by displacement or juxtaposition. Second, the non-representation of non-becoming is expressed concepts unrelated to the body and focus upon amorphous objects that do not become concretized forms. Third, generative non-representation by repetition and overlap expresses the possibility of change by overlapping clothing items or details expressed by repeating segmented objects. Fourth, generative non-representation by movement reproduces the meaning of space and time by moving the shape of the clothing or visually changing the surface of the material of clothing.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non-representation shown in contemporary fashion aims for versatility to conform to social changes. This study provides new insight into the fashion design method by increasing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non-representation and showing its potential.

Key Words: non-representation (비표상성), Gilles Deleuze (들뢰즈), expression (표현), Difference and Repetition (차이와 반복), fashion design (패션 디자인)

[†] Corresponding author ; Minjung Im

Tel. +82-43-299-8752

E-mail : vivianim@naver.com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패션은 복합적이고 혼성적 표현이 이루어지고 디지털 패션으로 확장되고 있다. 현대패션의 복합적이고 혼성적 표현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비표상성에 기인한다(김상학, 2009). 포스트모더니즘이라 불리는 실천과 이론들은 표상을 모더니즘의 한계로 보았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표상성을 내세워 예술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유·무형적 변화를 이끌었다(조경진, 2013).

현대패션의 혼성적이고 복합적인 표현은 차이를 구분하고 표현의 의미와 방법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혼성적이고 복합적으로 표현된 패션은 기존 인식이나 가치 체계를 부정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라 여겨 아방가르드 패션이라 부르고, 전통적 재현방식을 따르지 않아 해체주의라 통칭하는 경향이 있다. 패션디자인의 혼성적이고 복합적인 표현이 디자인 의도나 목적을 모호하게 만들어 의미 전달을 어렵게 한다.

디지털 전환으로 예술과 건축 분야에서는 비표상성(non-representation)을 재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성운, 2010; 박소라, 이영수, 2012). 표상이 동일성을 전제로 인간 내면에 구체적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이라면, 비표상성은 차이의 생성으로 지속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이상훈, 1994; 이진경, 2007)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예술의 비표상성에 관한 연구(김상학, 2009; 김성운, 2010; 김성운, 2013; 조경진, 2013)와 건축에서의 비표상성에 대한 연구(권태일, 2006; 임민택, 2018; 정인하, 2006)는 모두 들뢰즈가 제시한 ‘표현(expression)’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표상은 ‘동일성’을 전제로 지각의 재현이 가능하지만 비표상은 ‘차이(difference)’의 인식에서 출발해 사실상 재현이 불가능하다. 한편, 들뢰즈가 제시한 ‘표현’ 개념은 표상의 해체를 목표로 하며 생성되는 차이가 어떠한 동일성에도 매개되지 않는 ‘차이 그 자체’의 존재를 밝히는 전략적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다(권태일, 2006).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는 들뢰즈 이론의 표현 특성 연구(송해인, 김진영, 2020; 양

희영, 2009; 양희영, 양숙희, 2008; 왕형우, 김현주, 2020), 들뢰즈의 주름 사유와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양희영, 양숙희, 2007; 전현경, 2013; 진경옥, 2013)가 이루어졌으나 비표상성의 삼항성을 창작의 원리로 구분하여 표현을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체라는 형상 위에 의복이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개인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표상하려는 사회적 관념이 비표상성의 적용을 배제했을 수 있다. 하지만 테크놀러지를 적용한 새로운 개념의 의상, 가상공간과 디지털 자산 창출에 의한 부캐릭터와 같은 다양한 정체성의 추구 및 NFT 패션 등 패션디자인 패러다임 변화를 관통하는 새로운 디자인 관점으로 패션디자인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대패션에 나타난 비표상성을 규명하고 표현 방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패션에 영감을 제공하는 현대예술과 인간의 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간 구조라는 공통점으로 사조 경향이나 체계에서 유사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는(김유경, 2009; 박선지, 2015; Hodge, 2006) 건축에서의 비표상성의 표현 방법을 도출하여 현대패션에 표현된 비표상성을 분석하였다. 존재 자체의 차이와 생성을 핵심으로 한 비표상성은 ‘동일시’와 ‘차별화’란 두 가지 상반된 욕구를 충족해야 하는 현대 패션디자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디지털 기술에 의해 확장되고 있는 감각과 표현에 대한 이해를 높여 패션디자인 방법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비표상의 개념

비표상이란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개념으로 표상의 의미에 의존해야 이해할 수 있다. 표상이란 추상적이거나 드러나지 않은 것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내는 것이다. 표상은 마음 또는 의식에 현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철학 심리학 용어로(두피디아, 2022) 표상하다는 추상적이거나 드러나지 않은 것을 가시적이고 감각 하도록 드러내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표준국어대사전,

2022). 표상의 개념에서 유추한 비표상 개념은 '드러내어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표상은 내면의 인식과 재현한 대상이 같다는 동일성을 전제로 한다(Deleuze, 2004a/1991). 표상이 인간 내면에 대상의 구체적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이라면 비표상은 현행하지 않은 잠재적인 것, 원본이 아닌 시뮬라크르(simulacre), 독자적인 것을 대상으로 무한 사유를 하는 것이다.

예술에서 표상과 표상의 대상 사이에는 재현의 목적이 있으며 유사성을 전제로 한다(Beardsley, 1999). 표상을 의미하는 영어 레프리젠테이션(representation)은 그리스어로 '닮음'을 뜻하는 미메시스(mimesis)를 라틴어 레프리젠테어(repraesentare)로 번역한 것에서 유래한다(김성운, 2012). 특히, 회화는 닮음에 의한 시각적 환영이 발생하여 표상으로서의 예술이 성립한다(Deleuze, 2008/1981). 표상은 환원적 개념으로 원본과 닮음으로써 의미를 갖게 된다. 들뢰즈는 표상이라는 말에서 접두사 're'가 반복으로 차이를 없애는 동일성의 개념적 형식을 취한다고 보았다(Deleuze, 2004a/1991). 표상은 드러냄(presentation)이란 있음을 다시(re) 있게 하는 의식적 활동으로(Deleuze, 2004a/1991) 서로 차이를 가지며 다양하게 나타난 것들을 다시 모아 '동일한 하나에 종속시킨다(서동욱, 2008). 표상은 차이를 제거해 고정된 본질만 남겨 일반화한 유사성 또는 동일성에서 출발한다.

비표상은 동일성의 지배에서 벗어나 '차이'가 인식체계의 근본이다. 들뢰즈는 차이를 반복의 결과로 보았다(최영송, 2019). 즉 반복이 차이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들뢰즈는 비표상을 차이의 반복을 통해 시공간에 따라 무한 확장되고 다양성의 의미를 넘어 차이를 생성하는 다양체(multiplicity), 즉 일반화할 수 없는 포괄적 의미로 정의했다. 종합하면, 대상을 재현하는 표상은 환원적, 배제적, 다의적이고, 어떠한 형체를 생산하는 과정으로서 비표상은 다자 또는 다양체, 표현적, 존재의 일의성이라는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Deleuze, 2004a/1991).

2. 들뢰즈의 차이의 반복과 표현의 의미

들뢰즈는 존재가 차이를 통해 드러난다고 했다(Deleuze, 2004a/1991). 들뢰즈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실재하는 것은 차이뿐이지만 인간이 차이의 반복 속에서 동일성을 포착해 낸다고 보았다. 반복은 차이의 반복이지만 동일성이 출현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 모든 생명체는 물질대사의 반복으로 생존하며 반복은 기억되고 기억은 생존을 위한 조건이 된다.

시각적 관점에서 차이는 '다름'의 의미이다. 차이는 동일성과 유사성에 의지해 사유하기 때문에 여전히 동일성에 종속되어 있다(Deleuze, 2004a/1991). 차이의 반복 속에서 동일한 부분만이 기억으로 남고 차이는 잊힌다. 일반화란 변수 관계를 통제해 차이를 배제한 것으로 똑같은 실험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흘러가는 시간 속 현실은 똑같은 조건일 수 없다. 차이보다 유사성과 동일성이 선행하고 반복은 일반성이 구성되는 숨겨진 기저로 작동하여 차이는 잊히거나 '다름'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인식된다(Deleuze, 2004a/1991).

반복에 의한 차이는 대상의 변화를 표현한 것이다. 같은 인물을 그릴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그린 그림은 반복 속에 차이를 드러낸 것이다. 대상이 가진 하나의 '본질'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흐르는 시간 속 필연적 차이를 포착한 것이다. 이것은 반복으로 차이를 드러내고 대상이 지속해서 변화하는 과정, 즉 다양체를 의미한다.

표현이란 작품에 이미 드러난 상태가 아니라, 인식 대상으로 구조화되기 이전 무한한 잠재성에 의해 차이가 생성되는 것을 말한다. 표현은 동일성을 전제로 한 '표상'과 달리 잠재된 순수 차이가 생성되는 과정이다(Deleuze, 2004a/1991). 들뢰즈는 잠재성을 존재 세계의 실재와 허구를 구별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보았다(이진경, 2007). 잠재성은 가능성과 구분된다. 잠재성은 현행화되지 않은 능력이고 가능성은 실재를 역투사하여 재구성해낸 허구에 불과하다. 잠재성은 현행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존재한다. 현행화되지 않은 잠재성은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현행화의 가능성을 내포한 창조의 과정이다(이아름, 2022). 가능성은 표상의 산물로 현행화되지 않은 모든 가능성은 허구가 된다. 들뢰즈는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z)의 모순과 공존 불가능성에 대해 '아담이 죄를 짓다'라는 예로 설명한다(Deleuze, 2004a/1991). 이 문장은 아담이 죄를 지을 수도,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 이때 가능

성은 실재가 아니라 '죄를 지은 아담'이란 실재를 환원하여 표상한 것으로 현행화가 이루어지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은 허구가 된다. 한편, 잠재성의 현행화는 언제나 창조를 동반하며 현행화되지 않았어도 현재의 다른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예술에서 표현과 재현은 다른 의미이다. 표현적 관점과 재현적 관점은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만든다. 들뢰즈는 둔스 스코투스(Duns Scot J.)의 일의성의 존재론을 토대로 표현과 재현의 개념을 구분했다(Deleuze, 2004a/1991). 들뢰즈는 새벽 별/저녁 별과 야곱/이스라엘, plan/blanc와 같이 동일한 대상이 다르게 표현되는 예로 설명하였다. 금성이 셋별과 개밥바라기별로 다르게 불리거나, 동일 인물이 야곱과 이스라엘로 다르게 불리는 것은 하나의 존재가 다른 존재로 개체화된다는 의미이다(Deleuze, 2004a/1991). 표현이 본질에 부합하는 정도는 판단할 수 있지만 덜 사용된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양한 표현의 차이 모두는 그에 부합하는 독자적 가치를 갖는다. 반면, 재현은 가장 유사한 것만이 의미가 있으며 여러 재현이 전달하는 것은 재현하고자 한 본래의 의미이다.

표현은 접속하는 이웃이 달라지면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늑대란 말은 양과 대비하여 약자를 위협하는 악을, 개와 대비될 땐 길 들지 않는 야생성을 의미한다. 재현적 기호로서 늑대란 동물의 하나지만, 표현적 늑대는 다른 의미들을 생산한다. 표현은 결합을 통해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태를 생산한다. 늑대 인간이라는 결합은 늑대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새로운 실체를 만든다. 들뢰즈는 표현과 표현된 것 사이에 잠재된 새로운 실체가 생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들뢰즈는 기호와 의미, 기표와 기의 같은 기호의 이항성을 부정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 표현, 그것을 통해 표현되는 것,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삼항성이라 명명했다(Deleuze, 2004a/1991). 삼항성의 개념에서 표현은 지시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금성은 셋별과 개밥바라기 외에도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금성이라는 원본에서 벗어나 전달하려는 내용에 따른 독자적 의미를 가진다.

3. 현대예술과 건축에 표현된 비표상성

들뢰즈 철학의 기본 구도에서 실재적인 것(The real)은 잠재적인 것(The virtual)과 현실적인 것(The actual)으로 이루어져 있다(최영송, 2019). 현실적인 것이 현재의 시공간에 실제로 드러난 것을 가리킨다면, 잠재적인 것은 실제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실재하는 것이다. 들뢰즈가 말한 표현 관점에서 '표현하려는 것', '표현'과 '표현되는 것'이라는 삼항성의 세 가지 양태는 현실에서의 재현이 아니라 잠재해있는 실재들의 상관관계를 표현한다. 비표상 회화는 구상적이고 삽화적이면서 서술적이 아니라 순수 형태나 순수 형상, 순수 색면 등으로 표현된다(최영송, 2019). 들뢰즈는 형상을 형태를 재현하는 '구상'도 아니고, 형태의 재현을 벗어나는 '추상'도 아니라고 하여 형상적인 것을 구상적인 것과 구분하였다(Deleuze, 2004b/1988). 형상적으로 잠재성은 '기관 없는 신체'이다. 막 부화하고 있는 달걀의 내부상태로 비유되는 '기관 없는 신체'란 유기체가 되기 이전의 신체, 카오스 상태, 불완전성과 미결정성의 상태로 무한한 변이와 생성을 잠재적으로 품고 있다(Deleuze, 2008/1981).

예술에서의 비표상성은 들뢰즈의 『감각의 논리』에서 베이컨 작품 해설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하나는 유기체적 생성이 지연되는 잠재성의 비표상이며, 다음은 표현의 형식만이 존재하고 구체적인 차이가 산출되지 않는 무 생성적 차원의 비표상이다. 마지막으로 유기체적 관계를 끊고 사회적 관계를 끊임없이 생산하여 재배치하는 생성 차원의 비표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운(2012)은 비표상성을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제시한 해체의 작동원리와 연결하여 차연·흔적, 산중, 반복, 여백, 중첩, 에퀴트리, 텍스트로 분석하였다. 권태일(2006)은 생성지연적 비표상, 무생성적 비표상, 생성적 비표상으로 구분하여 현대예술에 나타난 비표상성의 세 양태를 분석하였다. 정인하(2006)는 비표상성을 도시이론과 관련하여 구조 의존성, 형식주의적 경향, 새로운 시간개념의 채택, 사건과 공간개념의 특이성으로 제시하였다. 임민택(2018)은 비표상적 공간의 특성을 연속적 공간성, 시간의 내재성, 경계의 다양성으로 도출하였다. 선행 연구를 들뢰즈 표현의 삼항성에 맞추어 정리하면 비표상성은 다음의 네 가지 특

성을 포함한다.

첫째, 비표상성은 합의된 문법 체계, 즉 선행된 경험과 사고에 의한 공통된 사유체계가 기본적으로 함축되어있어야 발현된다. 비표상성은 기존의 형식 즉, 언어 혹은 기호, 이미지의 분리, 분절 혹은 파편화를 통해 이를 조작하면서 기존의 형식과 의미체계와 상관없는 생성 논리를 갖는다. 둘째, 비표상성은 기존의 문맥화된 것과는 상관없이 형상의 '재현'을 부정하며 미분화 상태에서 차이를 생성시키는 잠재성을 드러낸다. 비표상성은 표상의 파괴를 통해 환원하며 미결정상태가 된다. 셋째, 비표상성은 사건과 특이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시공간 개념을 포함한다. 시간의 흐름 속에 동일한 공간과 시간은 실재하지 않는다. 고정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오히려 추상적이다. 비표상성은 실제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포함되어있는 불확정성과 혼돈에 의한 차이를 현실화한다. 넷째, 비표상성은 기관 없이도 사회적 관계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재배치하여 역동적인 차이를 지

속해서 생산한다. 이러한 특성은 디지털 공간에서는 인간의 신체가 척도였던 환경, 시간의 개념, 정보의 의미가 붕괴하고 디지털 미디어가 모든 것을 재조직하고 무한히 변용시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체와 부분이 필연적 관계가 아닌 부분과 부분들이 내재적 변용 역량에 따라 서로 분리되거나 결합해 새로운 변용태를 끊임없이 생성한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현대예술과 건축에 나타난 비표상성을 위의 4가지 특성으로 재분류하면, 기존의 형태를 환원해 잠재된 의미를 표출하지만, 잠재성의 표현을 구체화하지 않는 생성지연적 비표상성, 잠재성의 재현을 부정하는 무 생성적 비표상성, 실제적 형상의 반복 표현으로 비표상을 표현하는 반복·중첩에 의한 생성적 비표상성, 시공간의 변용을 표현하는 움직임에 의한 생성적 비표상성으로 나뉜다(표 1).

1) 생성 지연적 비표상성

(표 1) 들리즈 삼향성과 현대예술과 건축에 나타난 비표상성

들리즈		김성운 (2012)	권태일 (2006)	정인하 (2006)	임민택 (2018)	비표상성
차이와 반복	감각의 논리	비표상의 작동원리	비표상의 양태	비표상 개념의 주요 속성	비표상적 공간 특성	
삼향성	예술 층위					
표현하는 것	형상: 실재성	차연·혼적: 차이의 지연	생성지연적 비표상	구조 의존성: 합의된 문법 체계가 선행하는 자의적 관계	연속적 공간성(연속 성, 지속성, 확장성)	생성지연적 비표상
		에크리튀르: 문자, 글쓰기, 기호				
표현	구상: 현실성	여백: 비정형	무생성적 비표상	형식주의적: 조작할 수 있는 이미지 또는 형태	시간의 내재성(화합 성, 가변성, 수용성)	무생성적 비표상
		산중: 재생산, 다중성, 다의성	생성적 비표상			반복·중첩 에 의한 생성적 비표상
		반복: 복수, 복제				
		중첩: 다면, 다층,				
표현되는 것	비표상: 잠재성	컨텍스트: 맥락, 관계		시간: 헤테로토피아	경계의 다양성(상호 침투성, 복합성, 이질성)	움직임에 의한 생성적 비표상
				공간: 사건과 특이성		

생성 지연적 비표상성은 기존의 오브제를 환원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것에 집중한다. 관습적 기능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잠재된 의미를 표출하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예술에서의 비표상성은 여러 사물을 붙여 화면을 구성하는 콜라주(collage)와 데페이즈망(dépaysement)이나 트롱프뢰유(trope l'oeil)와 같이 모순을 일으키는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을 사용해 본래의 용도, 기능, 의미를 분리하지만, 잠재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평범한 스톨 의자 위에 자전거 바퀴를 올린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Bicycle Wheel, 1951』, 의자와 휴지통 위에 가재모양의 튜브를 올린 제프 쿤스(Jeff Koons)의 『Acrobat, 2003』은 관련성이 없는 사물을 배치해 사물이 가진 본래 용도와 의미를 해체하고 새로운 의미를 생산한다. 르네 마그리트(René François Ghislain Magritte)의 『이미지의 배반 (The Treachery of Images), 1929』와 제프 코스스(Joseph Kosuth)의 『One and Three Chairs, 1965』는 실재, 이미지, 언어를 각각의 개체로 분리해 실재, 이미지, 언어의 필연적 관계를 전복시킨다.

건축에서의 생성지연적 비표상성은 근대 건축의 전형성을 해체하려 시도하지만 새로운 형태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MVRDV의 『이중구성 주택, 1995-97』은 전체 외부 형태는 박스형의 근대 건축의 외형을 유지하고 내부 개별 거주 공간의 구성도 근대 건축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권태일, 2006). 하지만 내부 구성은 두 개의 개별 주택 공간을 지그재그(zigzag) 형태로 배치해 수직과 수평 분할 방식의 근대 건축의 형식과는 다른 시도를 보인다.

2) 무 생성적 비표상성

무 생성적 비표상성은 형상의 재현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잠재성을 표현한다. 무생성적 비표상성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감각된 사유로 감각만을 전달한다(Deleuze, 2004a/1991). 생성 지연적 비표상성이 재현된 형상의 표상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잠재성의 생성을 지연하는 것이라면, 무 생성적 비표상성은 미분화된 방식으로 잠재성을 드러낸다. 무 생성적 비표상성은 형상, 크기, 방향, 규정, 위계 등 선형적 경험에 의한 순수 기

하학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미분화 단계의 이질적 형태로 표현된다.

잭슨 폴락(Jackson Pollock)의 액션 페인팅 『One: Number 31, 1950』, 카지미르 말레비치(Kazimir Malevich)의 『Black Square, 1915』,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작품과 같은 추상미술은 구체적 형상을 제거해도 표현과 감각의 전달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형체가 사라진 대상은 선형적 경험에 따라 사유하지 않고 경험을 넘어서는 초험적으로 인식된다. 어떠한 것도 표상하지 않아 아무에게도 경험되지 않은 것, 익숙한 것을 알던 대로 판단하게 해주던 것을 와해해 새로운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프랭크 게리(Frank Gehry)의 건축물은 곡선들이 외형을 이루며 기존 건축의 구상적 표현 형식을 따르지 않는다. 앞과 뒤, 안과 밖, 높고 낮음이 없다. 어떤 방향에서도 다른 형상을 보임으로써 구체적 형상으로 특정할 수 없다. 도미니크 페로(Dominique Perrault)의 이화여대 캠퍼스, FOA(Foreign Office Architects)의 요코하마 국제항만 터미널(Yokohama International Terminal)과 같은 랜드스케이프(landscape) 건축은 대지와 건축을 연속된 표면으로 일체화해 건물과 대지를 상호 관통시킨다. 건물의 지붕이나 바닥이 인공적인 대지를 형성하고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하나의 표면으로 통합한다. 랜드스케이프 건축가들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대지의 부분을 하나의 질서로 통합하지 않고 대지와 건물, 자연과 인공의 경계를 없애고 결합한다.

3) 반복·중첩에 의한 생성적 비표상성

반복·중첩에 의한 생성적 비표상성은 시·공간에 포함된 혼돈이나 불확정적인 잠재성을 재현한 형상을 반복해 표현한다. 반복에 의한 차이의 생성은 정적인 동일성의 표상에서 벗어나 변화의 가능성을 표현한다.

에셔(M.C. Escher)의 『Sky and Water, 1938』은 음각과 양각이 바뀌는 과정에서 물고기는 새가 되고, 새는 다시 물고기가 되는 이중구조이다. 개체를 반복해 물고기의 배경인 바다가 하늘이 되어 새의 배경이 되는 과정을 유추하게 한다.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Three Studies of

George Dyer, 1964』는 차례로 독립된 세 개의 구체적인 형상을 배치해 실재를 고정적인 존재가 아닌 생성되는 시물라크르 즉, '사건'으로 표현했다.

현대 건축에서 사나(SANAA)의 건축물은 각각의 기능을 가지는 독립된 공간들을 단순한 입방체나 원형 안에 반복해 넣는다(박소라, 이영수, 2012).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Kanazawa 21st Century Museum of Contemporary Art)은 원형의 공간 안에 독립된 전시실을 반복해 놓았다. SANNA의 공간은 특정한 용도로 규정하지 않는 변용적 공간으로 사용자의 행위와 사건에 의해 공간의 성격이 재구성된다(조한, 김덕재, 2010). 공간을 위계가 없이 동등하게 구성해 각 공간의 독자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공간 간의 차이를 전이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공간과 공간과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반복·중첩에 의한 생성적 비표상성은 잠재성을 표현하기 위해 실재를 존재가 아니라 사건으로 표현하고 고립과 분리, 변형과 분산 기법을 사용한다. 고립과 분리는 대상을 재현하는 것을 멈추고 분리해낸 개체를 반복 또는 중첩해 변화에 의한 차이를 실재화 한다.

4) 움직임에 의한 생성적 비표상성

움직임에 의한 생성적 비표상성은 시간의 흐름과 공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잠재성을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움직임은 시공간적 관계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재배치하여 무한한 변용 능력을 생성한다. 움직임은 전체와 부분이 필연적 관계로 나타나지 않고 부분과 부분들이 내재적 변용역량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끊임없이 생성한다.

모빌이라 불리는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의 조각작품은 움직임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상을 재배치한다. 형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공간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재배치하여 무한한 변용을 생성한다. 이이남의 『신-금강전도』는 겸재의 '금강전도'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혼성모방한 디지털 그림이다(김형순, 2009).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 산천에서 도시로, 낮에서 밤으로, 계절의 변화, 멀리서 가까이 다가오는 헬리콥터를 실제 움직임과 소리로 재현하고 있다. 복

합적 감각의 디지털 재현은 다양한 시물라크르를 생산한다. 움직이는 시각적 표현에 내재한 역사에 대한 사유가 무한 생성된다.

디지털 기술은 건축 표현의 전환을 가져왔다. 디지털 모델링은 프로그램 자체의 생성 원리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건축 형태를 생성한다. 프랭크 게리는 디지털 모델링으로 재료의 물성, 공간의 움직임, 움직이는 형태를 표현했다. 자하 하디드(Zaha Hadid)와 그렉 린(Greg Lynn)의 건축물은 넵스 모델링(NURBS Modelling)을 사용하여 연속된 곡면 형상의 건축물을 구현했다. 디지털 기술로 무한히 복제되고 실제처럼 움직이는 세계를 생성할 수 있는 비물질적 가상공간의 생성이 가능하다.

움직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실재를 생성시킬 잠재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잠재성은 움직임에 의한 복수성(multiplicity), 곡면(curvilinearity), 시간과 공간과의 관계 생성을 원리로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현대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비표상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질 들뢰즈(Gilles Deleuze)가 『차이와 반복』에서 제시한 철학적 사유를 토대로 비표상 개념을 규명하고 들뢰즈가 베이컨의 작품을 해석한 『감각의 논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현 개념을 중심으로 예술과 건축에 적용된 비표상성을 차용해 현대 패션디자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 작품들을 조형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들뢰즈가 제시한 차이의 생성이라는 인식체계를 토대로 잠재성이 다양체(multiplicity)로 표현되는 과정에서의 표현 원리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연구 대상은 최신 패션디자인의 표현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세계 4대 패션 컬렉션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들뢰즈가 제시한 삼항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종합해 마련한 비표상성을 분석기준으로 패션 컬렉션 이미지 사례를 분류해 분석하였다.



〈그림 1〉 Marni

Fall 2018 Ready to wear (출처: <https://www.vogue.com>)



〈그림 2〉 Sacai

Fall 2018 Ready to wear (출처: <https://www.vogue.com>)



〈그림 3〉 Gabriele

Colangelo Spring 2018 Ready to wear (출처: <https://www.vogue.com>)



〈그림 4〉 Gucci

Fall 2018 Ready to wear (출처: <https://www.vogue.com>)



〈그림 5〉 Simon Rocha

Spring 2017 Ready to wear (출처: <https://www.vogue.com>)

2. 사례수집과 분류

분석에 사용한 이미지 사례 수집은 2단계로 진행하였다. 비표상성 개념이 예술과 건축에서 표현 특성으로 나타난 생성 지연적 비표상성의 해체와 분리, 무 생성적 비표상성의 추상, 반복·중첩에 의한 생성적 비표상성의 반복과 중첩, 움직임에 의한 생성적 비표상성의 움직임이라는 키워드를 2022년도 7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포털 사이트 구글(www.google.com)과 네이버(www.naver.com)를 검색해 패션 관련 기사와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1차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35명의 디자이너 68개 패션 컬렉션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68개 컬렉션을 보그(www.vogue.com) 4대 패션 런웨이(runway)를 검색해 2,946개 이미지를 2차로 추출하였으며 생성지연적 비표상성, 무 생성적 비표상성, 반복·중첩에 의한 비표상성, 움직임에 의한 비표상성으로 분류하였다. 생성지연적 비표상성은 예술 기법에서의 콜라주를 포함한 초현실주의 세부 표현기법으로 재분류했다. 수집한 사례의 디자인 표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패션디자인 전문가 3인이 검토하여 의견이 일치하는 사례를 선정해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비표상성

1) 생성 지연적 비표상성

생성 지연적 비표상성은 합의된 체계로서 기존 오브제를 사용하지만 본래 기능과 형태와는 무관하게 표현한다. 디자인 요소를 해체하고 자의적으로 재배치한 의상은 사회 관습에 의한 의복 전형성을 해체한다. 의복 형태와 착용 방식, 착용으로 형성된 이미지와 가치 등을 전복하지만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생성 지연적 비표상성이 자동기술법, 콜라주, 아상블라주(asmblage), 데페이즈망, 데포르마송(deformation), 트롱프뢰유 등의 초현실주의 예술 표현기법을 사용한 것처럼 현대패션에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1920년대 엘사 스키아파렐리(Elsa Schiaparelli) 이후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라프 시몬스(Raf Simons) 등 해체 패션 디자인을 선보이는 패션디자이너의 컬렉션은 생성 지연적 비표상성의 대표 사례로 분류되었으며 표현 방법에 따라 재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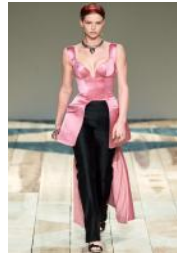
하프 앤 하프(half and half) 디자인은 인체의 대칭성을 부정하고 소재, 색채, 패턴, 아이템에 상관없이 두 개 이상의 디자인을 양쪽에 병치해 결합했다. 발망(Balmain) 2019 FW 컬렉션은 데님 재킷의 반쪽과 가죽 재킷의 반쪽을 맞붙인 의상이 선보였다. 마르니(Marni) 2018 FW 컬렉션은 민무늬 새틴 소재 드레스와 기하학적 무늬 드레스, 두 개의 다른 드레스를 결합한 드레스를 선보였다(그림 1). 사카이(Sacai) 2018 FW 컬렉션에서는 〈그림 2〉와 같이 푸퍼 재킷의 반쪽과 줄무늬 모직 코트의 반쪽을 맞붙인 부피가 큰 코트를 선보였다. 이질적인 두 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된 사카이 디자인은 울 코트라고도 푸퍼 재킷이라고도



〈그림 6〉 Louis Vuitton, Resort 2020
(출처: <https://www.vogue.com>)



〈그림 7〉 Erika Cavallini, Fall 2017 Ready to wear
(출처: <https://www.vogue.com>)



〈그림 8〉 Alexander McQueen, Fall 2020 Ready to wear
(출처: <https://www.vogue.com>)



〈그림 9〉 Beautiful People, Spring 2018 Ready to wear
(출처: <https://www.vogue.com>)



〈그림 10〉 Maison Margiela, Spring 2017 Ready to wear
(출처: <https://www.vogue.com>)



〈그림 11〉 Moschino, Spring 2019 Ready to wear
(출처: <https://www.vogue.com>)



〈그림 12〉 Toga, Spring 2020 Ready to wear
(출처: <https://www.vogue.com>)



〈그림 13〉 Gucci, Fall 2021 Ready to wear
(출처: <https://www.vogue.com>)

말할 수 있다. 가브리엘 콜란젤로(Gabriele Colangelo)는 2018 SS 컬렉션에서 한쪽에는 원피스를 다른 쪽에는 바지 정장을 결합한 디자인을 선보였다(그림 3). 알렉산드로 미켈레(Alessandro Michele)는 구찌(Gucci) 2018 FW 컬렉션은 '닥터 프랑켄슈타인(Dr. Frankenstein)'을 타이틀로 이질적 요소들을 병치한 디자인을 선보였다(Mower, 2018). 짙은 남색의 민무늬 소재와 체크무늬 울 소재를 맞붙여 만든 코트 〈그림 4〉는 정체성을 하나로 규정하는 의복의 관념을 해체한다.

하프 드레싱(half dressing)은 옷을 반만 입거나 반으로 나눈 옷을 입는 유행이다(Carder, 2017). 하프 드레싱은 어떤 종류의 의복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스타일이 변한다. 시몬 로샤(Simon Rocha)의 2017 SS 컬렉션은 낭만적인 빅토리아 시대 및 에드워드 시대를 표현하는 블라우스를 착용한 위에 현대 감각의 트렌치코트를 반만 걸쳐 입어 두 개의 감성을 표현하고 있다(그림 5).

콜라주 또는 이상블라주 방식의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 요소를 조합해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한다. 니콜라스 게스키에르(Nicolas Ghesquière)는 루이비통(Louis Vuitton) 2020년도 리조트 컬렉션

은 JFK공항의 TWA 센터 인수를 상징하는 디자인을 선보였다(Phelps, 2019). 항공사의 유니폼 재킷과 어깨에서 가슴을 지나 허리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로고 테이프 그리고 어깨 아래쪽 가슴 부위에 가로로 레이스를 배치한 의상은 세 가지 이질적 요소를 조합했다(그림 6). 에리카 카발리니(Erika Cavallini) 2017 FW 컬렉션은 색채와 문양이 다른 스웨터를 맞붙인 상의와 두 개의 트렌치코트를 비스듬하게 맞붙이고 러플과 벨트를 늘 어뜨린 하의를 매치해 본래의 아이템이 가진 이미지와는 다른 분위기로 연출했다(그림 7).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2020 FW 컬렉션에서는 코르셋, 테일러드 재킷, 드레스 아이템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는 부분들을 조합한 디자인을 검정 바지와 매치한 의상을 선보였다(그림 8). 뷰티풀 피플(Beautiful People) 2018 SS 컬렉션은 드레스 위에 드레스를 붙인 의상을 선보였다(그림 9).

용도를 전환한 테페이즈망 기법 디자인은 빅터 앤롤프(Viktor & Rolf), 장 폴 고티에, 마틴 마르지엘라 등 초현실주의 패션을 추구하는 디자이너들의 작품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디자인은 테페이즈망 기법에서 나아가 사물을 왜곡하고 변형해



〈그림 14〉 Moschino.
Spring 2017 Ready to wear
(출처: <https://www.vogue.com>)



〈그림 15〉 Jean Paul Gaultier.
Fall 2022 couture
(출처: <https://www.vogue.com>)



〈그림 16〉 Thome Brwon.
Fall 2019 Ready to wear
(출처: <https://www.vogue.com>)



〈그림 17〉 Thome Brwon.
Fall 2017 Ready to wear
(출처: <https://www.vogu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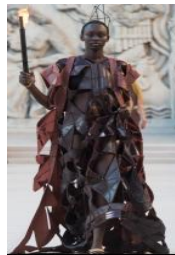
〈그림 18〉 Comme des Garçons.
Fall 2017 Ready to wear
(출처: <https://www.vogue.com>)



〈그림 19〉 Roksanda.
Fall 2022 Ready to wear
(출처: <https://www.vogue.com>)



〈그림 20〉 Yohji yamamoto.
Fall 2018 Ready to wear
(출처: <https://www.vogue.com>)



〈그림 21〉 Rick Owens.
Spring 2019 Ready to wear
(출처: <https://www.vogue.com>)

데포르마송으로 확장하고 있다. 메종 마르지엘라 (Maison Margiela) 2017 SS 컬렉션에서는 코트를 원피스로 착용한 의상을 선보였다(그림 10). 모스키노(Moschino) 2019 SS는 인체를 입체재단용 마네킹으로 표현하고 드레스는 줄자 형태로 표현하였다(그림 11). 토가(Toga) 2020 SS 컬렉션은 상의로 착용하는 트렌치코트를 하의 스커트로 입는 디자인을 제시하였다(그림 12). 구찌 2018 FW 컬렉션은 가방을 ‘메는 것’이 아니라 ‘입는 것’으로 바꾸고, 모자는 ‘쓰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담는 것’으로 치환한 모자 형태의 가방을 선보였다(그림 13).

트롱프뢰유 기법은 모스키노, 메종 마르지엘라, 톰 브라운(Thom Browne) 등 많은 디자이너가 활용하고 있다. 모스키노 2017 SS 컬렉션과 장 폴 고티에 2022 SS 컬렉션 디자인은 모델이 착용한 의상과는 다른 스타일의 의상 이미지가 프린트되어있다(그림 14, 15). 두 개의 스타일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톰 브라운의 2017 FW 컬렉션과 2019 FW 컬렉션은 트롱프뢰유를 컬렉션 테마로 사용했다. 팬시 트위드 편직 기술을 이용한 실용적 디자인 〈그림 16〉에서 초현실적 감각을 극대화한 디자인 〈그림 17〉까지 다양한 의

상을 선보였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패션에서의 생성 지연적 비표상성은 전형적인 의류 아이템의 디자인 요소를 분절, 분리, 파편화시켜 표상을 해체하는 데 집중한다. 다른 스타일, 용도, 아이템, 기능, 착용 방식, 이미지 전환과 같은 새로운 의미 생성은 미결정 상태로 다중적 의미를 표현한다.

2) 무 생성적 비표상성

무 생성적 비표상성은 미분화한 형태로 잠재성을 드러낸다. 패션에서의 무 생성적 비표상성은 신체와 의복의 관계로 형성되는 형태와 기능과는 상관없이 무정형하게 표현된다. 패션의 무생성적 비표상성은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라 불리는 콥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 요지 야마모토,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와 같은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을 포함한다.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은 인체 형태를 왜곡하고 불확정, 불균형 무정형으로 디자인해 안티 패션으로도 불린다.

콥 데 가르송 2017 FW 컬렉션은 차이와 반복

에 의한 미분화 패션을 선보였다(그림 18). 옷과 착용자 사이의 공간을 남기고 여러 겹으로 감싼 전체적으로 크고 풍성한 형태는 인종, 젠더, 나이, 문화, 사회적 계층 등 모든 정체성을 감춘다. 록산다(Roksanda)와 필라(Fila)가 협업한 2022 FW 컬렉션 <그림 19>는 보호와 안식처로서의 패션을 형상화했다("JTDapper Fashion week", 2022). 요지 야마모토 2018 FW 컬렉션 디자인은 <그림 20>과 같이 무작위적 주름에 의해 우연적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릭 오웬스(Rick Owens) 2019 FW 컬렉션에서는 <그림 21>과 같이 삼각 무늬 조각이 반복되었을 뿐 그 무엇을 상징하거나 재현하지 않는다.

패션에서의 무생성적 비표상성은 인체와 무관한 비현실적인 디자인으로 의류의 기능, 착용 방식, 방향, 성 구분 등의 기준에 형성된 가치와 상징을 제거하고 보이지 않는 실재를 무작위 형태로 표현한다.

3) 반복·중첩에 의한 생성적 비표상성

반복·중첩에 의한 생성적 비표상성은 반복에 의한 차이의 생성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표현한다. 패션에서의 반복·중첩에 의한 생성적 비표상성은 의류 디자인 요소를 중첩하거나 반복해 실루엣과 디자인 변화를 표현한다. 디자인 디테일의 중첩과 반복은 다른 두 개의 의상을 착용한 것처럼 보이는 시각적 효과와 기능을 만든다. 투명 소재 사용과 이질적 소재의 결합은 중첩의 효과를 높인다.

프로엔자 슐러 (Proenza Schouler) 2019 FW 컬렉션은 두 개의 아이템이 중첩된 투인원(two-in-one) 형식의 디자인을 선보였다(그림 22). 의상은 트렌치코트(trench coat)와 블레이저(blazer) 두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정 배색으로 블레이저 디테일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네크라인은 라펠(lapel)을 변형해 스카프와 같은 기능을 한다. 언리어에이지(Anrealage) 2019 SS 컬렉션은 트렌치코트가 오간자 드레스로 바뀌는 디자인을 선보였다(그림 23). 존 갈리아노 2019 SS 컬렉션은 투명한 두 개의 아이템을 겹쳐 입어 캐주얼한 감성과 드레시한 감성을 동시에 표현한다(그림 24). 뮈글러(Mulgler) 2019 SS 컬렉션은 드로우 스트링을 활용한 디자인을 선보였다(그림 25). 드로우 스트링은 주름으로 실루엣과 디자인을 변화시킨다. 준야 와타나베 2017 SS 컬렉션은 종이접기 기법을 사용한 3D 기하학적 형태의 의상을 스트리트웨어와 결합했다(그림 26). 주름을 사용한 디자인은 들뢰즈가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르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름의 접기와 펼쳐짐에 의해 유연한 변화를 만드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메종 마르지엘라는 의류 아이템을 분리하고 재결합하는 방식의 디자인을 선보였다(그림 27).

4) 움직임에 의한 생성적 비표상성

움직임에 의한 생성적 비표상성은 유기체가 동적이며 항상성을 가지고 스스로 통제, 조직, 회복시키며 새로운 개체로 생성, 성장하는 것처럼 시공간에서 움직임을 보인다. 패션에서의 움직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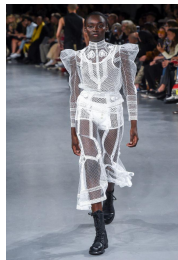
<그림 22>
Proenza Schouler
Fall 2019 Ready to wear

(출처: <https://www.vogue.com>)



<그림 23>
Anrealage.
Spring 2019 Ready to wear

(출처: <https://www.vogue.com>)



<그림 24> John Galliano.
Spring 2019 Ready to wear

(출처: <https://www.vogue.com>)



<그림 25>
Mulgler.
Spring 2019 Ready to wear

(출처: <https://www.vogue.com>)



<그림 26> Junya Watanabe.
Spring 2017 Ready to wear

(출처: <https://www.vogue.com>)



<그림 27> Mason Margiela.
Fall 2018 Ready to wear

(출처: <https://www.vogue.com>)



〈그림 28〉 Maison Margiela, Spring 2018 couture
(출처: <https://www.vogue.com>)



〈그림 29〉 Iris Van Herpen, Spring 2018 couture
(출처: <https://www.vogue.com>)

의한 생성적 비표상성은 의류 형태의 변화나 의류 소재 표현의 시각적 변화를 표현한다.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는 메종 마르지엘라 2018 SS 컬렉션에서 맨눈으로는 단색으로 보였던 의상이 카메라 플래시에 의해 디지털카메라를 통해서서는 오색으로 보이는 의상을 선보였다(Mower, 2018). 트렌치코트 위에 코르셋을 착용한 스타일의 의상은 빛에 따라 다른 색채로 변한다(그림 28). 코르셋 형태의 의상은 색채와 형태가 변하지 않지만, 트렌치코트는 빛의 발광에 따라 색채가 달라지고 여러 색이 동시에 반사되어 색채의 차이가 발생한다. 아이리스 반 헤르펜(Iris Van Herpen)의 새의 깃털과 음파 패턴을 복제한 신토피아(Syntopia) 컬렉션 작품 〈그림 29〉는 신체 움직임으로 의류 소재가 흔들리며 여러 형태를 표현한다. 파라 메트릭 패턴으로 제작한 의상은 지속성과 독립성을 갖는 특이한 조형성을 보이고 리듬을 표현하며 변화한다(Hitti, 2018).

움직임에 의한 생성적 비표상성은 하나의 형태를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움직임으로 표현된다. 움직임에 의한 지속적 변형은 새로운 형상을 창조한다. 어떤 움직임에 의해 계속 생성되는 형상은 표상을 부정하고 생성된 리듬은 시각 차원을 넘어 촉각을 연계한다.

IV. 결론 및 제언

비표상성은 생성적 사유로 새로운 표현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현대예술과 건축 작품에서 비표상성 표현 방법을 도출하고 현대패션에 나타난 비표상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들뢰즈의 비표상 개념을 규명하고 현대예술과 건축에

나타난 비표상성의 표현 방법을 기준으로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비표상성을 분석하였다.

현대패션에 표현된 비표상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성 지연적 비표상성은 의복의 재현을 통한 전형성을 해체하고 기존 의복이 형성한 가치와 상징을 전복해 차이를 드러낸다. 초현실주의 예술 기법들을 사용해 이질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병치하거나 조합해 표현한다. 기존의 가치를 파괴함으로써 관습적으로 구분해왔던 의류 디자인, 아이템, 기능, 형태를 해체하지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둘째, 무 생성적 비표상성은 신체와의 관계로 형성되는 의류 형태와 무관한 무정형의 형태를 표현한다. 셋째, 반복·중첩에 의한 생성적 비표상성은 디자인 요소를 중첩하고 반복해 두 가지 이상의 스타일을 하나의 의상에 표현한다. 넷째, 움직임에 의한 생성적 비표상성은 인체 움직임에 의해 의류 형태가 변하거나 의류 소재의 변화를 표현한다.

연구 결과에 대한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성지연적 비표상성이 이미 형성된 의류의 표상을 해체하는 데 집중하는 것과 비교하여 무 생성적 비표상성, 반복·중첩에 의한 생성적 비표상성, 움직임에 의한 생성적 비표상성은 잠재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둘째, 현대패션의 비표상성은 의복의 전형성을 해체하고 기존 의복이 형성한 가치와 상징을 전복해 드러내고자 하는 잠재성은 의류의 다목적성(versatility)을 지향하고 있다. 다목적성은 현대사회의 시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다양성과 구분된다. 셋째, 트렌치코트와 재킷과 같이 아이템 디테일 전형성이 명확한 의류의 해체는 TPO를 해체해 캐주얼 감성을 높이고 독특함을 강조한다. 넷째, 패션에 나타난 비표상성은

예술과 건축 분야에서와 같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례는 아이리스 반 헤르펜 사례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의류는 인체 착용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착용과 활동을 고려한 형태와 소재 사용이 제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표상성은 패션과 개인을 일반화하는 인식체계에서 벗어나 어떠한 동일성과 유사성으로 매개되지 않는 ‘차이 그 자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디자인 개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비표상성은 새로운 지각의 가능성을 창출함으로써 잠재되어 있으나 드러나지 않았던 흐르는 시간에 의한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공간과의 관계 속 차이를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다.

연구의 한계는 디자이너에 따라 같은 디자인 방법으로 여러 컬렉션에 걸쳐 다수의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고 복합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디자인의 경우 분류가 어려워 빈도 분석에 의한 의미 있는 양적 연구 결과를 확보할 수 없었다. 생성지연적 비표상성과 반복·중첩에 의한 비표상성은 특성이 교차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밝힌다. 또한 수집 범위를 확대하면 시대 트렌드 변화와 유행 주기와 관련한 깊이 있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류 디자인을 비표상성의 다양체 개념으로 접근하여 동일성과 차별화를 동시에 충족하는 디자인 개발 방법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에 의한 시공간의 확장과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개인의 정체성 및 브랜드 정체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비표상성은 가상과 실재가 공존하고 유기체와 같이 시간 흐름 속 지속해서 변하는 개인의 개별화된 특성에 부합하는 패션디자인 기획과 개발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태일. (2006). 들뢰즈의 ‘표현’ 개념으로 본 현대 예술의 비(非)표상성 : 현대의 회화와 건축에 나타난 비표상성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41, 135-170.
- 김상학. (2009). 비표상적 사고로서의 디자인 창작의 근원. *기초조형학연구*, 10(1), 61-69.
- 김성운. (2010). 디지털아트에 나타난 비표상적 특질에 관한 연구. *정보디자인학연구*, 13(2), 45-54.
- 김성운. (2012). *현대 디지털 아트의 비표상에 대한 해체미학적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운. (2013). 나노아트에 나타난 들뢰즈의 비표상론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14, 39-48.
- 김유경. (2009). 건축적 조형성이 반영된 현대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5(4), 97-107.
- 김형순. (2009. 11. 23). 정선의 ‘금강전도’에 헬기와 전투기가 나타났다. *Ohmynews*, 자료검색일 2022. 9. 23, 자료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65585
- 박선지. (2015). 건축과 패션의 비교를 통해 고찰한 구조적 단순성.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7(1), 1-11.
- 박소라, 이영수. (2012). 회화와 건축에서 나타나는 비재현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1(5), 114-121.
- 서동욱. (2008). *차이와 타자*(Difference and others). 서울: 문학과지성사.
- 송해인, 김진영. (2020). 들뢰즈의 감각론의 관점으로 본 아이리스 반 헤르펜 패션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24(4), 117-129.
- 양희영. (2009). 현대패션에 나타난 재현과 되기 현상에 대한 비교 연구 -미메시스와 들뢰즈의 되기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3(2), 200-212.
- 양희영, 양숙희. (2007). 현대패션에 나타난 주름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라이프니츠와 들뢰즈를 중심으로. *복식*, 57(1), 130-146.
- 양희영, 양숙희. (2008).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연속성 연구-베르그송의 지속 이론과 들뢰즈의 연속성 이론을 중심으로. *복식*, 58(2), 15-33.
- 왕형우, 김현주. (2020). 현대 패션디자인에 반영된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론과 강도. *디지털융복합연구*, 18(12), 513-523.
- 이아름. (2022). 들뢰즈의 이념이론에서 잠재성에 관한 고찰. *인문학연구*, 51, 301-332.

- 이상훈. (1994). 근대와 탈근대(이진경 지음 『철학과 굴뚝청소부』, 새길 1994). *창작과비평*, 22(4), 360-362.
- 이진경. (2007). *철학과 굴뚝청소부-데카르트에서 들뢰즈까지*. 서울: 그린비.
- 임면택. (2018). 질 들뢰즈의 '차이'를 기반으로 한 공간의 비표상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3(3), 189-198.
- 전현경. (2013). Gilles Deleuze의 주름사유를 적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개발.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조경진. (2013). 현대예술의 비표상성과 화이트헤드의 상징론. *화이트헤드연구*, 25, 45-80.
- 조한, 김덕재. (2010). 들뢰즈 철학과 SANAA 건축의 비표상적인 생태적 사유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6(6), 131-140.
- 진경옥. (2013). 들뢰즈의 주름론으로 본 현대패션에 표현된 주름디자인의 조형성.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3(3), 1-17.
- 최영송. (2019). *질들뢰즈의 감각의 논리 읽기*. 서울: 세창미디어.
- 정인하. (2006). *현대건축과 비표상*. 서울: 나카넷.
- 표상. (2022). *두디피아*. 자료검색일 2022. 11. 18. 자료출처 from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37334
- 표상하다. (2022). *표준국어대사전*. 자료검색일 2022. 12. 18. 자료출처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 Beardsley, M. C. (1999). *Aesthetics from classical greece to the present: a short history*, (Lee, S. H. & An, W. H. Trans.). Seoul: Theory and Practice. (Original work published 1966)
- Carder, S. (2017, April 19). Half Dressing Is The Bizarre New Trend Confusing Everyone-First there was 'shrobing' and now there's this. *Elle*. Retrieved August 3, 2022, from <https://www.elle.com/uk/fashion/articles/a35293/everyone-is-half-dressing/>
- Deleuze, G. (2004a). *Difference & repetition* (Kim, S. H., Trans.). Seoul: Minumesa, (Original work published 1991)
- Deleuze, G. (2004b). *The fold : Leibniz and the Baroque* (Lee, C. W., Trans.). Seoul: Moonji, (Original work published 1988)
- Deleuze, G. & Félix Guattari. (2003).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2* (Kim, J. I., Trans.). Seoul: Saemulgyul. (Original work published 1980)
- Deleuze, G. (2008). *Francis bacon: the logic of sensation* (Ha, T. H., Trans.). Seoul: Minumesa. (Original work published 1981)
- Fall 2017 Ready to wear Comme des Garçon.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7-ready-to-wear/comme-des-garcons/slideshow/collection#4>
- Fall 2017 Ready to wear Erika Cavallini.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7-ready-to-wear/erika-cavallini/slideshow/collection#1>
- Fall 2017 Ready to wear Thom browne.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7-menswear/thom-browne/slideshow/collection#30>
- Fall 2018 Couture Iris van Herpen.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8-couture/iris-van-herpen/slideshow/collection#12>
- Fall 2018 Ready to wear Gucci.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8-ready-to-wear/gucci/slideshow/collection#49>
- Fall 2018 Ready to wear Mason Margiela.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8-ready-to-wear/maison-martin-margiela/slideshow/collection#29>
- Fall 2018 Ready to wear Marni.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8-ready-to-wear/marni/slideshow/collection#26>
- Fall 2018 Ready to wear Scai. (n.d.). *VOGUE*.

- Retrieved September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8-ready-to-wear/sacai/slideshow/collection#2>
- Fall 2018 Ready to wear Yohji Yamamoto.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8-ready-to-wear/yohji-yamamoto/slideshow/collection#2>
- Fall 2019 Ready to wear Proenza Schouler.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9-ready-to-wear/proenza-schouler/slideshow/collection#4>
- Fall 2019 Ready to wear Thom browne.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9-ready-to-wear/thom-browne/slideshow/collection#26>
- Fall 2020 Ready to wear Alexander Mcqueen.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0-ready-to-wear/alexander-mcqueen/slideshow/collection#42>
- Fall 2021 Ready to wear Gucci.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1-ready-to-wear/gucci/slideshow/collection#47>
- Fall 2022 Couture Jean Paul Gaultier.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2-couture/jean-paul-gaultier/slideshow/collection#23>
- Fall 2022 Ready to wear Roksanda.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2-ready-to-wear/roksanda/slideshow/collection#38>
- Hitti, N. (2018, July 6). Iris Van Herpen Translates Motion of Bird Flight into Pleated Garments. *dezeen*. Retrieved September 10, 2022, from <https://www.dezeen.com/2018/07/06/iris-van-herpen-studio-drift-paris-haute-couture-fashion-week-bird-flight/#>
- Hodge, B. (2006). *Skin + Bones: parallel practices in fashion and architecture*. London: Thames & Hudson
- Mower, S. (2018, January 24). Maison Margiela Spring 2018 Couture. *VOGUE*. Retrieved December 8,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8-couture/maison-martin-margiela>
- Mower, S. (2018, February 21). Gucci Fall 2018 Ready-To-Wear. *VOGUE*. Retrieved August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8-ready-to-wear/gucci>
- Phelps, N. (2019, May 8). Louis Vuitton RESORT 2020. *VOGUE*. Retrieved August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resort-2020/louis-vuitton>
- Resort 2020 Louis Vuitton.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resort-2020/louis-vuitton>
- Spring 2017 Ready to wear Junya Watanabe.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7-ready-to-wear/junya-watanabe/slideshow/collection#1>
- Spring 2017 Ready to wear Maison Margiela.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7-ready-to-wear/maison-martin-margiela/slideshow/collection#3>
- Spring 2017 Ready to wear Moschino.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0, 2022,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7-ready-to-wear/moschino/slideshow/collection#28>
- Spring 2017 Ready to wear Simone Rocha.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7-ready-to-wear/simone-rocha/slideshow/collection#14>
- Spring 2018 Couture Maison Margiela.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

- 2018-couture/maison-martin-margiela/slideshow/collection#2
- Spring 2018 Ready to wear Beautiful People.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8-ready-to-wear/beautiful-people/slideshow/collection#4>
- Spring 2018 Ready to wear Gabriele Colangelo.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8-ready-to-wear/gabriele-colangelo/slideshow/collection#4>
- Spring 2019 Ready to wear Anrealage.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9-ready-to-wear/anrealage/slideshow/collection#21>
- Spring 2019 Ready to wear John Galliano.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9-ready-to-wear/john-galliano/slideshow/collection#13>
- Spring 2019 Ready to wear Moschino.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9-ready-to-wear/moschino/slideshow/collection#57>
- Spring 2019 Ready to wear Mulgler.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9-ready-to-wear/mugler/slideshow/collection#27>
- Spring 2019 Ready to wear Rick Owens.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9-ready-to-wear/rick-owens/slideshow/collection#32>
- Spring 2020 Ready to wear Toga. (n.d.). *VOGUE*. Retrieved September 10, 2022,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0-ready-to-wear/toga/slideshow/collection#19>